

# 광주FC 브라질에 '겨울 둉지'

광주 FC 후원회가 1부 도약을 위해 힘을 모아온 지원에 나섰다.

광주 FC가 2014시즌 클래식 리그 진입을 위해 브라질 캠프를 준비하고 있다. 초반 부진 속 젤리지 리그 우승을 이루지 못했지만 실태를 고려 삼아 겨울 브라질에서 담금질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브라질 대장정을 위해 광주 후원회가 두 팔을 걷어붙였다. 19일 열창관 후원회장은 구단 사무실을 찾아 정원주 광주 대표이사에게 전지훈련 비용 1억원을 전달했다.

지난 달 20일 결성된 후원회의 본격적인

행보 속에 광주는 예산 고민을 털고 브라질 행을 구체화하게 됐다.

시즌 중반 취임한 정원주 대표이사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다.

정 대표이사는 "팀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자리를 맡게 됐지만 팬들에게 1부 리그 승격을 약속했다. 올 시즌은 초반 극심한 부진으로 결과가 좋지 못했다. 내년 1부 승격을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며 "선수 단 규모도 줄이고 체질개선을 해서 2014시즌에 승부수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이사가 클래식 무대 재진입의 최

우선 과제로 꼽는 것은 '겨울 농사'다. 좋은 선수의 영입과 알찬 동계훈련이 광주의 2014시즌을 위한 토대라고 생각한 것이다.

2부 리그 팀이라는 냉담한 시선에도 브라

질행을 추진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정 대표이사는 "재정도 좋지 않고 2부에 있으면서 그렇게 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고 하실 수도 있지만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확실한 지원을 하고 나서 확실한 책임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또 훈련의 질과 성과, 외국인 선수 영입 문제 등을 생각하면

오히려 이득이 되는 선택이다"고 설명했다.

광주는 그 동안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 국내와 동아시아에 캠프를 차려왔다. 하지만 열악한 훈련 환경과 미瘴지 않은 연습상

대에 훈련 효과가 떨어졌다. 특히 현지의

수준 높은 팀들이 남미等地로 해외 전지훈련을 떠나면서 연습상태를 구하는 게 쉽지 않았고, 중국 전지훈련에서는 상대의 거친 플레이로 선수들이 곤혹을 치렀다.

지난 중국 캠프에서 이한신(현 경남)은 연습경기 도중 상대 선수의 발에 오른쪽 목부위를 맞으면서 정신을 잃기도 했다. 심폐

소생술까지 이뤄질 정도로 아찔한 상황이었다. 경기 도중 상대 선수가 심판을 폭행하면서 어렵게 잡은 연습경기가 중단되는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었다.

이런저런 고민과 계산 끝에 광주는 지난 9월 영입한 브라질 출신의 카를로스 피지컬 코치를 통해 쿠리치바에 캠프를 마련했다.

최고의 시설에서 강팀들과의 연습경기를 하

게 되면서 이번 캠프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브라질 캠프는 용병 영입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특별한 비용 없이 축구의 나라

브라질에서 직접 선수들의 기량을 점검하

고 계약을 할 수 있어 영입 비용과 실패의 가능성을 줄이는 등 1석 2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후원회는 브라질행에 걸림돌이 됐던 주가 훈련 비용 1억원을 지원해주면서 날개를 달아줬다.

후원회 염창곤 회장은 "동계 전지훈련은 한해 농사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 새로운 선수단을 구성해 강팀들과 경쟁한다면 2014 시즌 광주는 새롭게 태어날 것이다. 반드시 시민들과 함께 시민구단 최초 승격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소치 희망 탄 봄슬레이·스켈레톤

## 아메리카컵, 봄슬레이 2인승 4위·스켈레톤 4·5위

4년전 밴쿠버에 이어 '한국관 끌려남'의 두 번째 드라마를 써내려가는 설매 대표팀이 2014 소치 동계올림픽을 향한 첫 걸음을 힘차게 떴다.

남녀 봄슬레이·스켈레톤 대표팀은 17일(이하 한국시간) 캐나다 캘거리에서 끝난 2013-2014 아메리카컵 1~2차 대회에서 세계 정상급 선수들과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전, 올 시즌 전

망을 밝혔다.

파일럿 원윤종(28)을 중심으로 구성된 남자 봄슬레이팀은 2차 대회 2인승에서 두 차례 레이스 합계 1분51초43을 기록해 4위에 올랐고, 같은 대회 남자 4인승에서도 1분50초80의 기록으로 7위에 올랐다.

대표팀은 앞서 열린 1차 대회에서도 원윤종이 함께 1분51초32의 기록으로 2인승 6위, 김동현(27)이 합계 1분51초46의 기록으로 2인승 8위에 오르는 등 선전을 거듭했

다. 원윤종은 1차 대회 4인승에서도 조종간을 잡아 팀을 8위(1분51초72)로 이끌었다.

남자 스켈레톤에서도 분전이 이어졌다.

3년차 이한신(27)이 1분54초92의 기록으로 2차 대회 4위에 올랐고, 막내 윤성빈(19)이 1분54초95를 기록해 100분의 3초 차이로 5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한신과 윤성빈은 앞서 열린 1차 대회에서도 노란히 5~6위를 훨씬며 상위권에 안착할 실력을 증명했다.

한국 봄슬레이 대표팀은 지난 시즌 같은 대회에서 사상 첫 금메달을 목에 건 바 있다.

국제 봄슬레이스켈레톤연맹(FIBT)은 내년 1월 23일까지의 올 시즌 국가별 포인트 순위에 따라 상위 14개국에 26장의 올림픽 출전권을 준다.

포인트를 많이 따는 것이 중요한 데다, 곧이어 캘거리에서 월드컵 대회가 이어지는 일정이다 보니 유럽에서도 정상급 선수들이 이번 대회에 나섰다.

첫 대회에서 치열한 경쟁을 끊고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소치올림픽을 향한 대표팀의 전망에도 파란불이 들어왔다.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들은 봄슬레이에 남자 4인승 한 팀, 스켈레톤과 투지에 1명씩을 출전시켰다.

대표팀이 선전을 이어간다면 4년 전에 아쉽게 놓친 2인승 출전권까지 손에 넣어 또 한 번 신기원을 이룰 수 있다. 4인승과 2인승에서 모두 출전권을 따라면 현지에서 훈련시간을 더 많이 배정받을 수 있어 적응에 유리하다. 스켈레톤 역시 이번 대회에서 주요 경쟁국인 스위스, 이탈리아 등을 앞서며 남자 2팀을 출전시키겠다는 목표가 시화하고 있다.

국내에 선수가 단 두 명(김선옥·신미화)뿐인 여자 봄슬레이 대표팀도 2차 대회 2인승 12위에 오르는 등 사상 첫 올림픽 출전이라는 목표를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대표팀은 미국 파크시티로 자리를 옮겨 22일 개막하는 3~4차 대회에 출전해 도전을 이어간다. /연합뉴스



## 복귀 임박

부상 박지성, 팀 훈련 합류

발목 부상에서 회복한 '산소탱크' 박지성(32·에인트호번)이 팀 훈련에 합류하면서 그라운드 복귀가 임박했음을 알렸다.

에인트호번 구단은 19일(한국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박지성이 부상치료를 마치고 팀 훈련에 합류했다"며 박지성의 훈련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공개했다.

동영상 통해 공개된 박지성은 팀 동료와 함께 달리기로 물을 푼 뒤 양발을 사용해 드리틀을 하는 등 평소와 다름없이 훈련에 나섰다.

박지성은 지난 9월 29일 AZ 알크마르와의 네덜란드 프로축구 정규리그 8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후반 22분에 알크마르의 빅토르 엘름에게 왼쪽 발목 부위를 밟혀 교체됐다.

박지성의 부상은 당초 단순한 타박상으로 알려졌지만 발등 부위의 인대를 다친 것으로 밝혀지면서 그동안 치료와 재활에 집중했고, 마침내 50여일 만에 정상훈련에 복귀하게 됐다.

박지성의 부상 회복은 에인트호번에도 기쁜 소식이다. 팀의 정신적 지지 역할을 해온 박지성이 부상으로 빠져 있는 동안 에인트호번은 주력을 거듭하며 리그 8위까지 떨어졌다. 이런 가운데 박지성이 훈련에 복귀하면서 팀 역시 반전의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됐다.

박지성은 두 달 가까이 팀 훈련을 하지 못한 만큼 오는 23일 예정된 해렌벤파의 정규리그 홈 경기 출전은 어려울 전망이다. /연합뉴스

## 겨울 강 녹이는 열정의 성화 봉송

2014 소치 동계 올림픽 개막을 앞둔 19일 성화봉송 주자들이 성화와 국기, 대회기 등을 들고 얼어붙은 아무르 강을 헤엄쳐 건너고 있다. 지난 9일에는 국제우주정거장에 체류하고 있는 러시아 우주인 2명이 우주 유영을 하며 올림픽 역사상 최초의 우주 성화 봉송 퍼포먼스를 펼쳤다. /연합뉴스



## 종범 神 - 양神 神 지략 대결

### 다음달 7일 양준혁 재단 자선야구대회 감독으로

프로야구 레전드 이종범과 양준혁이 감독으로 첫 대결을 벌인다.

내달 7일 대구 시민야구장에서 열리는 '2013 희망 더하기 자선 야구대회'에서 이종범과 양준혁이 감독으로 만난다.

양준혁 야구재단이 주최하는 이번 대회는 멘토링 프로그램인 멘토리야구단 후원을 위해 마련됐으며 60여 명의 야구 응원단과 '종범신'팀과 '양신팀'으로 나뉘어 자선심을 건 한판 승부를 펼친다.

이종범 감독이 이끄는 '종범신'팀에는 김

진우·서제옹·안치홍(이상 KIA), 김현수·유희관(이상 두산), 윤희상(SK), 박한이(삼성) 등 각 팀의 각판 선수들이 출전한다.

정민철·마혜영·김한수 등 레전드 선수들도

만날 수 있다.

양준혁이 감독을 맡은 '양신팀'에는 김선빈·최희남(이상 KIA), 박병호(넥센), 강민호(롯데), 김광현(SK)을 포함한 올스타와 서용민, 최태원 등 레전드 그리고 고양원도스의 하민 구단주 등이 참가한다.

선수들은 기존 포지션 외에 다양한 포지

션에 배정돼 숨겨진 기량을 발휘할 예정이다.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팬사인회, 홈런레이스, 경품추첨 등 행사에도 함께 한다.

입장권은 티켓링크(www.ticketlink.co.kr)를 통해 판매되며, 가격은 외야 자유석(이하 일반기준)은 8000원, 내야 지정석 1만1000원 그리고 내야 테이블석 2만5000원이다. 경기는 MBC스포츠플러스에서 생중계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